



지난 7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페퍼저축은행과 흥국생명의 경기에 많은 관중이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 질 줄 알면서도...몰려든 관중 '1승'도 못했지만 응원엔 '1등'

광주 AI 페퍼스가 역대 여자부 개막 최다 연패라는 불명예를 썼다. 페퍼스는 지난 7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홈경기에서 흥국생명에 1-3(22-25 20-25 25-23 14-25)으로 패배했다. 페퍼스는 개막 이후 1, 2라운드를 통틀어 12경기에서 전패, 불명예 기록을 새로 작성했다. 종전 기록은 현대건설이 2007-2008시즌과 2018-2019시즌에 당했던 개막 11연패다. 김형실 감독이 개막 10연패로 자진해서 사퇴한 뒤 이경수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팀을 이끌고 있는 예도 연패를 끊지 못하고 있다. 1세트와 2세트는 니아 리드의 공격과 상대 범실로 대등하게 맞서다가 내렸고, 니아 리드가 공격을 주도한 끝에 3세트를 따내며 희망을 봤다. 그러나 4세트 들어 수비 집중력이 급격하게 흐

AI페퍼스, 흥국생명에 1-3 패 개막 12연패...최다 연패 불명예 공격성공률·블로킹 등 최하위 팀 정비해 반전의 기회 만들어야

트러지면서 그대로 경기를 내줬다. 리아 리드가 24득점, 이한비가 11득점했으나 나머지 선수들이 부진했다. 반면 흥국생명은 좌우 쌍포 엘레나(30점), 김연경(24점)이 무려 54점을 뽑아내는 파괴력으로 페퍼스를 압도했다. 페퍼스는 2라운까지 12경기를 치렀지만 공수 양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격 성공률 부문에서 리그 최하위인 33.77%에 그치고 있다. 블로킹도 세트당 1.565개로 리그 꼴찌다. 상대 팀 공격을 효율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상대 서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서브를 너무 평범하게 날으니 페퍼스는 경기 내내 상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리시브 효율은 32.78로 7개 구단 중 맨아래다. 서브도 너무 평범하다. 서브 득점은 세트당 0.585개로 7개 구단 중 가장 적다. 1위 현대건설의 서브 득점은 세트당 1.262개다. 페퍼스는 오는 10일 원정경기에서 또다시 흥국생명을 상대한다. 페퍼스가 지금까지 못한 연패 사슬을 끊고 반전의 기회를 만들기 주목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김연경, 3경기 더 뛰면 FA 자격 첫 취득

이번 시즌 후 FA 20여명

여자 프로배구 흥행을 주도하는 거포 김연경(34·흥국생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을 앞뒀다. 김연경은 8일 현재 2022-2023시즌 정규리그 12경기에 출전했다. 3경기만 더 뛰면 올 시즌 후 FA 자격을 얻는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매 시즌 출장(경기중 한 달)에 한해 교체로 출전해도 1경기 출장으로 인정 경기로 정규리그 전체 경기의 40% 이상일 경우 1시즌 경과로 보며, 이런 조건을 5시즌(고졸 입단 선수는 6시즌) 충족 시 FA 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김연경은 올 시즌 전체 경기 수(36경기)의 40%인 15경기를 뛰면 FA 요건을 충족한다. 김연경을 앞세운 흥국생명은 선두 현대건설과 더불어 2강을 형성하고 순항 중이다. 한일전산여고를 졸업하고 2005-2006시즌 데뷔한 김연경은 4시즌을 뛴 뒤 입대 선수 신분으로 일본으로 넘어가 터키 등 다른 나라에서 활약하다가 2020-2021시즌을 앞두고 11년 만에 V리그에 돌

아와 5시즌을 채웠다. 다만, 국외에서는 FA 신분이었지만, 국내에서는 V리그 규정(6시즌)에 1시즌이 모자라 FA가 될 수 없었다. 지난해 중국에서 활동한 김연경은 1년 만에 다시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고 2022-2023시즌에 돌아왔으며 이제 FA 취득에 필요한 6번째 시즌 충족을 바라보고 있다. 김연경을 필두로 이번 시즌 후 FA가 되는 선수들은 20명 수준이다. 한 번 FA 계약할 때 최대 계약기간이 3년에 불과해 벌써 몇 번씩 FA 권리를 행사하는 선수들이 눈에 띈다. 한국도로공사에 가장 많은 FA 예정 선수 5명이 있다. 정대영, 배유나, 박정아, 문정원, 전세안 등 주전이 모두 FA 시장에 나온다. 한송이(KGC인삼공사), 황연주(현대건설), 김희진-김수지(이상 IBK기업은행)도 새 FA 계약에 도전한다. 역대 여자 프로배구 FA 최다 계약 기록은 정대영(2007년·2011년·2014년·2017년·2020년)과 한송이(2008년·2011년·2014년·2017년·2020년)가 나란히 보유한 5회다. /연합뉴스



지난 7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페퍼스와 흥국생명의 경기에서 김연경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메이저리그 출신 투수 메디나 영입 임박 KIA, 외국인 선수 구성 곧 마무리 될 듯

KBO리그의 외국인 선수 조립이 속속 완성되고 있다.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선수 구성도 곧 마무리된다. KT위즈가 8일 외국인 투수 웨스 벤자민, 외야수 앤서니 알포드와의 재계약을 발표했다. KT는 지난달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와 차별하고 새 외국인 투수 보 솔서를 영입했던 만큼 2023시즌 8외국인 구성을 끝냈다. 앞서 7일에는 삼성 라이온즈가 외국인 선수 데이비드 뷰캐넌, 호세 피렐라, 엘버트 수아레즈와 재계약을 하면서 올 시즌 그대로 외국인 트리오를 꾸려가게 됐다. 특히 뷰캐넌은 4년 연속 삼성 유니폼을 입으면서 삼성 최장수 외국인 선수로도 남게 됐다. LG 트윈스도 에이브러햄 알몬테를 새로 영입하면서 '원투펀치' 케이시 켈리, 애덤 플러코와 함께 외국인 트리오를 구성했다. 맨 스트레일리와 다년 계약을 했던 롯데 자이언츠는 11월에 찰리 반즈, 잭 렉스와 재계약을 하면서 가장 먼저 외국인 선수 구성을 끝냈다. 내년 시즌 KBO리그에서 뛰게 될 각 구단의 외국인 선수 조립이 완성되면서 KIA의 마지막 퍼즐에도 관심이 쏠린다. KIA는 올 시즌 '히트 샹플'이었던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일찌감치 재계약을 끝낸 뒤 투수 손 앤더슨을 새로 영입했다. 선 놀린과 차별하고 장신의 우완 강속구 투수 앤더슨을 낙점한 KIA는 지난 5일에는 보류 선수로 묶어두었던 토머스 파노니도 자유계약선수로 풀



아도니스 메디나

었다. KIA는 다른 파이어볼러 영입을 1순위로 해서 파노니와의 재계약을 2순위로 고려했다. 파노니와도 차별한 KIA는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는 아도니스 메디나를 통해 마운드의 강령함을 더할 예정이다. 최고 154km를 찍은 앤더슨과 함께 메디나도 강속구로 눈길을 끄는 선수다. 메디컬 테스트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한 만큼 KIA는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메디나 영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올 시즌 후반기 놀린과 토머스가 안정적인 활약을 해줬지만 '원투펀치'의 강령함을 원했던 KIA는 투수진을 모두 교체하고 내년 시즌 마운드 새 판을 짜게 됐다. 외국인 투수들의 부상과 부진으로 아쉬운 시즌을 보냈던 만큼 스피드와 힘을 더한 KIA가 내년 시즌에는 '외국인 트리오'의 동반 활약으로 웃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로니 윌리엄스의 대체선수로 합류해 후반기 KIA 마운드를 이끌었던 파노니가 KBO리그에서 새 유니폼을 입고 '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될지도 팬들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안세영 혼신의 리턴 한국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이 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2 BWF 월드투어 파이널 여자단식 조별리그에서 인도네시아의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툰중을 상대로 혼신의 리턴을 하고 있다. 안세영이 2-1로 이겼다. /연합뉴스

## 저지, 양키스와 9년 4750억 계약...FA 역대 최고액

타자 연평균 최고 몸값 기록 뛰어넘는다. '정정 흥련왕' 에런 저지(30)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역대 자유계약선수(FA) 총액 기록을 갈아치우며 원소속팀 뉴욕 양키스와 계약했다. MLB닷컴, AP 등 미국 현지 매체들은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저지가 양키스와 계약 기간 9년 총액 3억6000만 달러(약 4750억원)에 FA 계약했다"고 알렸다. MLB닷컴은 "양키스 구단은 공식적으로 저지와 계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구단과 선수 측은 합의의 마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저지의 계약 규모는 2019년 외야수 브라이스 하퍼(30)가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맺은 역대 FA 계약 최고 총액(계약기간 13년, 3억3000만 달러)을

아울러 저지는 역대 FA 연평균 최고 몸값(4000만 달러·약 528억원) 3위, 타자 부문 1위에 올랐다. 저지보다 많은 연평균 몸값을 받는 FA 선수는 지난해 뉴욕 메츠와 계약기간 3년, 1억3000만 달러에 계약한 강속구 투수 맥스 셔저(38)와 올해 메츠와 계약기간 2년, 8666만 달러에 사인한 베테랑 투수 저스틴 발렌더(39)뿐이다. 두 선수는 나란히 연평균 4333만 달러를 받는다. 저지는 비 FA 다년 계약으로 MLB 타자 최고 연봉(3554만 달러)을 받는 마이크 트라웃(31·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까지 뛰어넘었다. 트라웃은 2019년 에인절스와 12년간 4억 2650만 달러에 비 FA 다년 계약을 맺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올빼미
2관	올빼미, 원피스 필름 레드
3관	입구정, 데시벨
4관	올빼미,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5관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6관	입구정
9관	프레이 포 더 데블, 스페이스 키드: 우주에서 살아남기
7관	씨네커플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원피스 필름 레드, 동감
8관	씨네커플 탄생, 크리스마스 캐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송년음악회 **蓋世之才** (개세지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32회 정기연주회

일시: 2022. 12. 15.(목) 19:30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062-415-5403